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소식지
2023년 3월호

지역

초월 번역

현대미술에서 번역은 일종의 기본값이다. 작품의 이해는 물론 전시, 프로그램, 출판처럼 작품에 담긴 의미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일의 과정 면면에서 여러 층위의 번역이 요구된다. 여기서 말하는 번역은 언어와 언어 사이, 주로 영어와 비영어 사이의 번역을 말하지만, 나아가 읽기 쉬운 글쓰기, 해외 작가의 현지 프로덕션에서 현실화는 물론이고, 기관의 행정적인 지침이나 규율을 바탕으로 한 이해와 소통까지 포괄한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우리가 말하는 번역은 특정 세계와 세계 간에 서로 다른 관습, 질서와 논리를 포함한 문화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다층적인 ‘코드’가 교차하고 접속하는 방법이라고도 바꾸어 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술은 물론이고, 어쩌면 비엔날레 역시도 하나의 언어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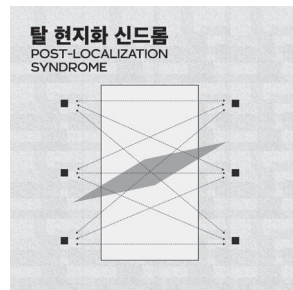
지난 사전프로그램에서 연구자이자 기획자 강민형은 ‘탈 현지화’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수입된 개념을 지역의 이해에 맞춰 ‘초월 번역’하기 위한 사유의 과정을 공유해 주었다. 그의 강연을 요약해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맥도날드, 유튜브, 구글과 같은 국제적인 기업들이 한국을 포함한 ‘지역’에 진출하면서 알려진 개념인 ‘현지화’는 말 그대로 지역 문화나 정서에 맞춰 상품의 프레임을 조정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현지화’는 결과적으로 시장 개척을 통한 ‘세계화’를 목적으로 둔 개념이지만, 동시에 지역과의 친근한 관계 맺음에 중점을 둔 ‘지역화(로컬라이제이션)’이기도 하다. 우리는 종종 ‘세계화’가 ‘지역화’와 대척되는 반대의 개념으로 잘못 이해하곤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현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현지화’는 ‘지역화’를 통한 ‘세계화’를 이룩한다는 논리로 점철되어 있기에, 중국에는 이 문장이 ‘동의이음어’로 이루어진 일종의 비문이 되어버린다.

그의 이야기는 이렇게 다른 결을 가진 단어를 관통하는 문화정치적 아이러니를 지나 접두어 ‘탈’과 관련한 국면으로 넘어간다. 근래 들어 많이 이야기되는 개념어 중에서, 주변부가 만드는 역동성을 의미하는 ‘탈중심(디센트럴라이즈드)’이라는 단어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무엇이 중심이고 무엇으로부터 ‘탈脫’ 하는 것인지를 거꾸로 질문할 수 있다. 영어에서 ‘de’가 붙는 개념어들을 주로 ‘탈’로 번역하고, ‘post’가 붙는 개념어들을 주로 ‘후기’로 번역하는데, 이것을 식민주의(콜로니제이션)라는 개념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어떤 단어로 번역하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로 전달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영어권에서 식민주의와 관련한 사전적 의미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콜로니얼리즘’은 16세기부터 20세기까지 유럽의 정치적 지배와 관련한 프로젝트를, ‘포스트콜로니얼’은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정치적 자주성을 찾는 사회적 과정을, ‘디콜로니얼’은 ‘포스트콜로니얼’의 과정 중에서 사회사, 경제, 정치적 제도를 통한 식민주의의 이치를 일컫는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강민형은 이 개념들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원어가 함의하는 전략이나 사용자의 문화정치적 위치를 이해하며 ‘초월 번역’하는 논리로 나아간다. 그러니까 한글로 사후를 의미하는 영어 접두사 ‘post’는 서구 중심의 역사관에서 만든 시간적인 전략이 내포된 것이고, 한글로 벗어남을 의미하는 영어 접두사 ‘de’는 서구 중심의 역사에 관한 대립의 전략이 내포되어 있다는 식이다.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초월 번역’된 개념어 ‘포스트콜로니얼’과 ‘디콜로니얼’은 각각 후기식민주의와 탈식민주의라는, 식민주의 역사에 관하여 전혀 다른 입장, 주제와 비전을 함의하는 입체적인 의미를 전달하게 된다.

동시대에 회자되는 주요한 생각들을 관통하는 개념 중에서 ‘탈인간’이 많이 언급된다. ‘탈인간’은 영어로 ‘디휴머니제이션’인데, 이 영어 단어는 지난 세기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전쟁, 노예제도, 우생학에 기반한 대량살상 등을 정당화하는 개념을 한글로 ‘비인간화’라고 번역했던 영어 단어이다. ‘탈현지화’를 이해하기 위해 ‘현지화’의 궁극적인 결과로서 ‘세계화’를 살펴보았던 것처럼, ‘비인간’과 ‘탈인간’의 간극을 이해하는데 우리는 ‘비인간’의 연장선에서 ‘사물화’ 혹은 ‘대상화’라는 개념에 관해 생각해볼 수 있다. ‘사물화’는 언뜻 인간이 동식물은 물론 기계나 로봇처럼 인간 외 존재, 즉 ‘비인간’보다 우월한 존재라는 착각을 가져오는 부정적인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거꾸로 장애, 인종, 계급, 젠더 등 기존의 인간 사회가 만들어 온 구분과 위계 속에서 무엇이 인간을 인간으로 정의할 수 있는지를 의심하고 질문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영어 ‘디휴머니제이션’을 지구상의 모든 존재와 공생을 위한 ‘탈인간’으로 ‘초월 번역’하게 된다.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를 포함한 세계의 모든 비엔날레는 비엔날레가 개최되는 ‘지역’을 번역하는 과정을 넘어 ‘초월 번역’을 욕망하며, 우리는 이와 관련한 시도나 노력을 여러 출판물, 프로그램, 관객 서비스는 물론이고 작품과 전시를 구성하는 공감각적 요소에서도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번 비엔날레는 서울이라는 지역의 무엇을 번역해야 할지, 혹은 서울 밖의 무엇을 ‘초월 번역’해서 전달할지를 질문할 차례인 것 같다.



↑ (좌) 강민형, 〈탈 현지화 신드롬〉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사전프로그램 《테라인포밍》

첫째 날 ‘모으기, 감각하기’ 전경, 2022.12.10

사진: 이의록

(우) 〈탈 현지화 신드롬〉 로고, 2022

디자인: 박시영

바림 제공

로컬 듣기

대개 도시명을 접두어처럼 사용하는 비엔날레에서, 비엔날레가 열리는 도시에 대한 질문은 늘 유효하다. 질문을 조금 더 확장시키면 비엔날레만이 아니라 비엔날레에서 소개하는 못 작품들은 주제나 소재가 얽힌 특정 지역, 즉 로컬의 의미에 대한 관심을 미루지 않는다.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사전프로그램 《테라인포밍》에서 큐레이터이자 통번역자로 활동하는 강민형은 〈탈 현지화 신드롬〉이라는 강연을 통해 ‘현지화’라는 개념에 대한 석학들의 이론적 접근과 더불어 동명의 공공프로그램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이 발표에서 ‘로컬’은 중요한 개념이었는데, ‘현지화’가 로컬라이제이션 Localization의 번역어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미디어나 게임 산업 등에서 현지의 언어와 문화에 맞게 콘텐츠 및 상품을 번안하는 로컬라이제이션은 본래 제2차 세계대전 열강들이 식민지역에 자국의 물건을 팔기 위한 시도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여러 식민지를 경영하는 강대국들이 보다 넓은 세계시장 개척을 위해서 도입한 표준화 작업이 로컬라이제이션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강민형은 반대 개념으로 사용되는 로컬과 글로벌이 이렇듯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흥미를 가진다. 특히 로컬라이제이션이 중시될 때 로컬(현지)이 중시되기도, 그 로컬을 모두 포섭한 중앙 정부/중심 기업의 힘이 강화되는 현상은 이런 미묘한 상관관계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로컬에 대하여 힘주어 말하는 만큼 드러나는 중심부, 그리고 로컬만의 특색을 찾으면서 발견하는 로컬라이제이션으로 희석된 로컬의 경계 등이 오늘날의 문화지형도를 그릴 때 어려운 지점으로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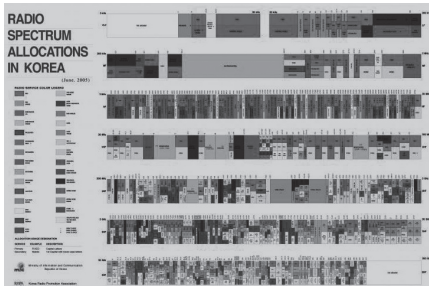
작가들은 특정 개념의 미묘한 지점을 감각적으로 재현하는데, 이는 ‘로컬’이라는 개념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서울에서 암스테르담으로 이주한 사운드 아티스트 나도는 도시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사운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주목한다. 나도는 산업단지의 요란한 소음이나 거리의 행인들이 만들어내는 작은 소리가 지구를 뒤덮는 도시문화의 침전물이라고 이해한다. 사전프로그램에서 나도는 암스테르담에서 채집한 사운드 소스를 재료로 창작한 〈침전물 관찰_시선 I〉을 선보였다. 약 5분 간의 청취 세션을 통해, 특정 지역에 침전되어 있었던 소리는 사전프로그램이 진행되었던 서소문본관 3층의 프로젝트 갤러리를 메웠다가 흩어졌다. 작가는 낮선 사운드로 가득찬 낮선 환경을 조성하고 관객으로 하여금 이 새로운 환경으로부터 어떤 불안을 느끼게 하였다. 작품에서 작가가 말하는 불안은 침전물이라 불리는 도시의 비근한 소리들이다. 도시가 만든 사운드로 다시 만들어낸 환경 안에서 우리는 불안을 경험한다.

라디오 EE는 로컬에 대한 또 다른 감각을 재현한 아티스트 콜렉티브이다. 아구스티나 우드게이트, 스테파니 셔먼, 헤르만 우드게이트로 구성된 라디오 EE는 일종의 라디오 방송국으로 고정된 시설에 기반을 두지 않는다. 대신 이들은 세계의 어딘가를 직접 방문하여 그 지역, 로컬을 청각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에 대하여 고민한다. 이번 사전 프로그램에서 라디오 EE는 〈지도가 되는 라디오〉라는 제목으로 이 라디오 프로젝트의 방법론에 대하여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굿모닝, 굿아브닝, 굿애프터눈”이라는 시작 멘트는 각각 다른 대륙에서 온라인으로 접속한 멤버들이 전세계의 청취자들을 고려한다는 점을 알게 해주었다. 이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머무는 장소에서만

방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우스 플로리다의 수로 위에서 보트를 타며, 아마존 정글의 빈 공장에 방문하며, 마이애미에서 16인용 자전거를 타며 시차가 교차하는 방송을 진행해왔다. 이때 로컬은 지역에서 들려오는 사소한 소음이나 말소리, 음악, 자연환경, 모빌리티에 대한 소리들이 되어 나타난다. 또 라디오 EE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소통을 시도하는데, 이때 멤버 세 사람의 모국어인 영어와 스페인어뿐만 아니라, 이들의 언어를 통역하는 현지 언어들이 섞여 들어간다. 언어와 언어에서 비롯된 문화는 그 지역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다. 이들의 방송은 달리는 차량 위에 이동 중에 진행되기도 하는데, 이것을 그들 식으로 표현하면 로컬에 대한 “청각적인 초상화를 그리는 것”이다.

우리는 이 두 작가(팀)이 제시한 로컬이 모두 청각적인 것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강민형의 발표에서 알 수 있듯이, 로컬라이제이션이 늘 로컬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로컬은 ‘여기서부터는 서울시입니다.’라고 써 있는 고정된 초록색 도로교통표지판이 아니다. 오히려 나도가 제시하는 것처럼 로컬은 도심의 미시적인 움직임이거나, 라디오 EE의 실천처럼 소위 현지어나 사투리 등 매끄럽지 않은 통역 안에서 발견되는 교류의 의지다. 로컬은 그 장소에 오고가는 모든 이들의 순환이자 그 순환이 부딪치며 일어나는 사운드의 합인 것이다.



↑ (좌) 2005년 한국의 라디오 주파수 할당
라디오 EE 제공

(우)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사전프로그램 《테라인포밍》
둘째 날 ‘감각하기, 재위치하기’ 토론 세션, 2022.12.11
사진: 이의록

돌봄에 대하여

권동현×권세정 작가의 <세디: 도도를 만나는 방법>(2021)에는 두 명/마리/개의 대상이 등장한다. 그 중 하나는 작가가 키우는 노견 ‘도도’이고 다른 하나는 그 노견을 위해 직접 제작한 돌봄 로봇 ‘세디’이다. 도도의 반려인은 바퀴로 이동하는 홈캠에 인간을 닮은 얼굴을 제작하여 부착했다. 그것은 사실 로봇이라기 보다는 양각으로 실내를 비추는 단순한 기계에 가깝지만, 눈, 코, 입 그리고 살을 닮은 형상을 더함으로 로봇이라는 지위를 획득한다. 반려인은 나지막하게 “도도야~” 하고 개의 이름을 반복하여 부르고, 피아노 소리를 들려주기도 한다. 그러나 노견이 반응하는 것은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라기 보다는 그 로봇이 이동할 때 나는 웅웅대는 소음이다. 개는 반려인을 닮은 로봇의 얼굴을 핥지만 그것은 애정의 대상을 상기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의 표면에 닿는 울퉁불퉁함을 감각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로봇이 움직일 때 발생하는 날카롭고 거칠대는 기계음은 집안의 고요를 흐트린다. 연약한 강아지가 그 대상을 편히 느낄리가 만무하다. 이 이질적이며 일방향적인 관계는 ‘내’가 인간이 아닌 대상에게 주는 애정과, 그 애정의 대상이 나에게 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관계를 떠올리게 한다. 그 돌봄의 관계는 기울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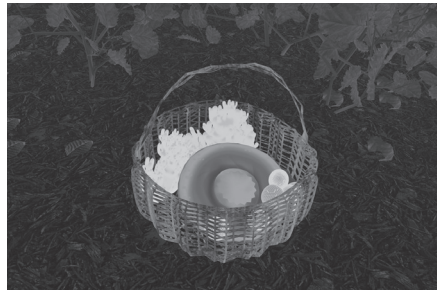
세바 칼푸케오는 버섯을 채취하는 ‘손’을 3D 그래픽으로 제시한다. 버섯은 자연이 서로 의존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생물이다. 그들은 살아있는 식물 위에는 피어나지 않는다. 그것이 번식을 시작하는 것은 보통 죽은 시체 위로, 이 생물은 이미 죽어버린 것들을 다독이면서 증식하고, 개체수를 유지한다. 그리고 그 땅은 시간을 거쳐 다시 비옥해져 다시 소나무가 자랄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소나무와 송로버섯의 관계는 단순한 착취의 관계로는 설명할 수 없으며, 버섯은 그 자체로 매우 복잡하고 다종(多種)적인 관계이면서 촘촘히 짜인 생태계의 비유가 된다. 세바의 작업 <마푸 쿠피>(2020)에 등장하는 로요 버섯, 노랑싸리 버섯, 야오야오 버섯은 고대부터 남미에 거주한 원주민 마푸체족(Mapuche)의 주요 식량자원으로서, 칠레와 마푸체족 사이에 지속된 전쟁 속에서 마푸체 공동체가 저항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준 주요한 수단이었다. 영상 속의 인물은 버섯의 뿌리를 해치지 않으면서 버섯을 채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할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리면서 땅 위를 계속 걸어나간다.

2017년 런던에서 시작한 ‘더 케어 컬렉티브’는 돌봄이라는 행위에 대하여, 인간과 비인간을 막론하고 모든 생명체 사이에 서로에 대한 상호 돌봄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돌봄 선언: 상호의존의 정치학』, 니케북스, 2021) 그리고 이것을 ‘난잡한 돌봄의 윤리’라고 했다. 돌봄은 단순히 제공받고 제공하는 시장 서비스로 구성된 일방향적 관계가 아니다. 오히려 돌봄은 촘촘하게 짜인 거미줄처럼 뒤섞이면서 확장되고 퍼져나가는 관계이다. 우리는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의 경계를 넘어서서 모든 것을 돌보고 또 돌보아줘야 하고, 모든 것을 신경쓰고 쓰임 받으면서 공존해야 한다. 권동현×권세정의 작업과 세바 칼푸케오의 작업은 탈인간의 시대에 돌봄을 다시 사유한다는 점에서 시대의 공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탈인간’, ‘포스트휴먼’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인공 심장으로 살아가는 초월 인류나 감정을 잃은 사이보그 또는 바둑을 매우 잘 두는 AI 따위를 떠올리곤 한다. 인간 너머라는 세계관이 과학

기술의 발전과 궤를 같이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 뒤에 실제 펼쳐지는 세계는 오히려 촘촘히 짜인 거미줄이나 여기 저기 퍼져 나가는 난잡한 포자의 형태에 가깝다. 우리는 급진적 인간의 해체 속에서 보편보다는 다수의 시선으로 서로를 돌보고, 돌봄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탈인간’이라는 말은 인간중심주의적 사고를 버림으로서 다시 인간성을 되찾을 수 있다는 뜻일까? 우리가 인간과 비인간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언어를 피하면서 그 구분 자체에 도전하는 방식은 어떤 것일까? 그런 질문들과 함께 난잡한 관계 속에서 착수들, 동물들, 로봇들, 버섯들이 인간과 함께 살고 있다.



↑ 세바 칼푸케오, 〈마푸쿠티(육지 해산물)〉 스틸, 2020
3D 비디오 애니메이션, 사운드, 5분 30초
3D 레지스터: 발렌티나 리켈메
작가 제공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SEOUL MEDIACITY BIENNALE

발행처 서울시립미술관
글, 편집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디자인 마바사(안마노, 김지섭)
인쇄, 제작 세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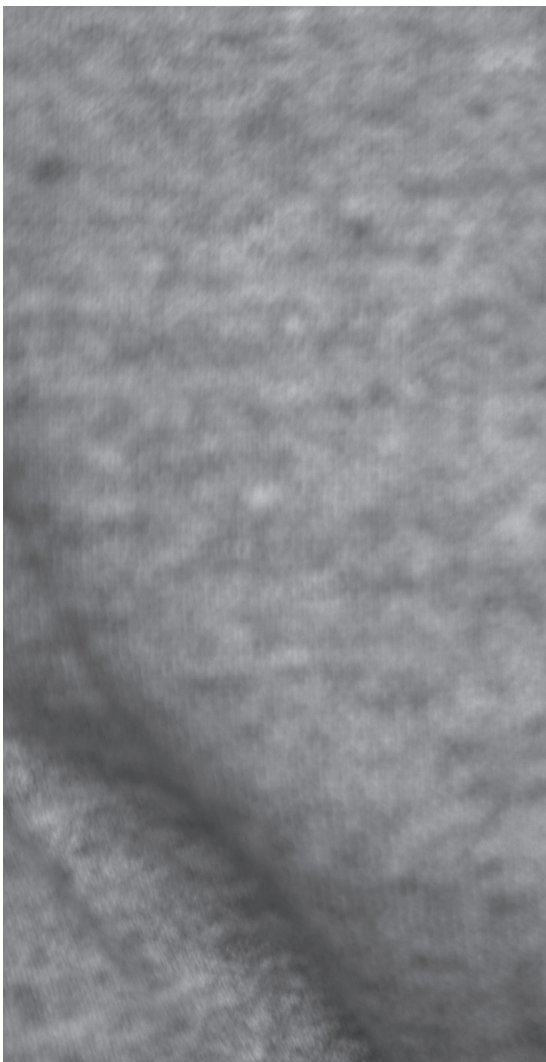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소식지 온라인 구독은
아래 QR코드로 신청해주세요.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중구 덕수궁길 61
contact@mediacityseoul.kr
mediacityseoul.kr



↑ 권동현×권세정, 〈세디: 도도를 만나는 방법〉
스틸, 2021
단체널 비디오, 4K, 15분 16초
작가 제공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소식지
3월호 『지역』

초월 번역

로컬 듣기

돌봄에 대하여

권동현 × 권세정, 〈세다: 도도를 만나는 방법〉 스릴, 2021
단채널 비디오, 4K, 15분 16초
작가 제공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SEOUL MEDIA CITY BIENNALE